태국의 지역 및 종족갈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조홍국**

Ⅰ. 서론
Ⅱ. 지역 및 종족 갈등의 양상
Ⅲ. 지역 및 종족 갈등의 원인 분석
Ⅳ. 결론

타이 정부는 지난 1세기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가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그러나 종종 남부와 북부와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다. 그 결과 타이 사회는 이 세 외곽 지역에서 심각한 지역 및 종족 갈등을 경험해 왔다. 그 원인은 근원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상황주의적 관점에서도 분석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는 19세기 말 이후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및 교육제도의 도입과 타이족 중심의 민족주의 강화, 그리고 1950년대 사릿 체제 이후 타이 정부의 방콕 및 중부 중심의 산업화 정책 등 내부 식민주의적 요인이 중시된다.

주제어: 국가통합, 내부 식민주의, 말레이 무슬림, 이산 정체성, 고산족

* 본 논문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I. 서론

태국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타이족[1]이 중심이 되어 있는 타이 사회에 화교·화인이 원만하게 동화되어 있고 여타 소수민족 분쟁이 별로 없어, 태국이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국가통합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이다. 태국의 국가통합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타이 국민이 국왕·불교·민족의 세 요소로 구성된 타이 국가를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단결을 바탕으로 타이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태국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그다지 안정되어 있지도 않고 국가통합이 잘 이루어진 나라도 아니다.

타이 정부는 지난 1세기간 때로는 종교정책으로, 때로는 경제정책 및 행정제도 방안을 통해, 때로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교육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가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그러나 남부와 북부와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성향이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때가 많았다. 그 결과 타이 사회는 남부에서 일어나는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격렬한 저항과 심각한 종족 갈등, 북부 고산족들에 대한 차별과 이에 대한 고산족 주민들의 반항, 그리고 이산(Isan)인이라고 불리는 동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그로 인한 이산 정체성의 형성 등을 경험해 왔다.

이상 세 지역에서의 갈등은 그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과 정도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남부에서의 경우는 오늘날에도 물리적 충

---

1) 본고에서 '태국'은 국명으로 사용된다. '타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용사'로 사용된다. 따라서 예컨대 '타이어'는 타이 언어를 가리킨다. '타이족'과 '타이인'의 차이는 전자가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서 '타이 민족'을 의미하는 데 비해, 후자는 하나의 정치적 개념으로서 '타이 국민'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돌을 보여주는 뚜렷한 것임에 비해, 동북부의 경우는 지난 수십년간 그 갈등이 약화되어 오늘날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갈등은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서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로 여전히 존재한다. 북부에서의 갈등은 앞의 두 지역과 비교할 때 그 역사가 짧고 그 양상도 심각한 적대감이나 대립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위의 세 지역에서의 오늘날 '갈등'을 모두 대립과 충돌이 나타나는 현상적 개념으로서의 '지역갈등'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논문에서 '갈등'이란 용어를 세 경우에 모두 적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북부의 경우 그 '갈등'이 오늘날 비록 표출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고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북부의 경우 배타적 정서와 문화적 이질감이 점차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동북부와 북부에는 '지역갈등'의 잠재성 내지는 조짐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타이 사회에서 오늘날 표출되거나 내재해 온 이러한 지역 및 종족갈등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통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태국의 지역 및 종족갈등의 원인을 그러한 원인들이 특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된 바탕을 갖고 있다는 근원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원인들이 근대 이후 특별한 상황 하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상황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남부, 북부, 동북부에서의 지역 및 종족갈등이 개별 지역으로는 각각의 역사적, 종족적 및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원인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내부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후자의 내부 식민주의 요인과 관련하여 특히 중시되는 측면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19세기 말 이후 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시작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도입, 둘째, 19세기 말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타이족 중심의 민족주의 강화, 셋째, 1950년대 사릿(Sarit) 체제 이후 타이 정부의 방콕 및 중부 중심의 산업화 정책 등이 그것이다.

지역 및 종족갈등은 한편에서는 타이 정부의 국가통합을 위한 노력과 다른 한편에서는 갈등의 당사자인 소수민족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성향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그러한 영향에 따라 태국에서의 지역 및 종족갈등이 차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2)]

II. 지역 및 종족갈등의 양상

1. 남부의 무슬림 사회

태국의 무슬림들은 말레이계 무슬림, 인도계 무슬림, 파키스탄계 무슬림, 이란계 무슬림, 인도네시아계 무슬림, 참족(Cham) 무슬림, 윈난성 출신 중국계 무슬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방콕 및 중부 태국과 북부 태국과 남부 태국 등의 여러 지방에 분포해 있다. 태국의 무슬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그룹은 빠따니 주, 사뚠 주, 얄라 주, 나라티왓 주 등 태국의 최남단 지방들에 살고 있는 말레이계 무슬림으로, 아래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지역 주민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다(Surin 1985, 17).

2) 이 논문에서 타이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도에 간행한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용례집」의 규정에 따른다.

〈표 1〉 태국 남부 주요 주(짱왓)에서의 2001년도 종교별 인구분포

	이슬람	불교	기독교	힌두시크	기타	이슬람 %	합계
사뚠	193,660	62,521	451	4	162	75%	256,798
빠따니	481,710	113,788	3,583	138	0	80%	599,219
얄라	254,075	172,929	1,408	409	680	59%	429,501
나라티왓	565,633	92,455	2,761	0	1,385	85%	662,234
합계	1,495,078	441,693	8,203	551	2,227	77%	1,947,752

출처: 동남아선교뉴스레터(2002/24, 19)

이 지역은 원래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말레이 세계의 일부였다. 이 지역이 불교 국가인 태국에 속하게 된 것은 지난 수백년간 타이족이 남쪽으로 추구한 팽창정책과 특히 1909년 영국과 태국간 체결된 국경조약의 결과이다. 이 조약으로 껄란딴, 꺼다, 뜨렝가누 그리고 꺼다에서 떨어져 나온 뻐를리스는 영국령 말라야로 넘어 갔고, 빠따니, 사뚠, 얄라, 나라티왓 지역은 태국의 영토로 남게 되었다(Wyatt 1984, 206-207). 이 네 지방의 인구의 대부분이 말레이인이고 무슬림이었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영국과 태국간의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중시되어 자의적으로 국경이 그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한 갈등은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이 이 네 지방을 자신들의 땅으로 간주하여 "다르 알 이슬람(dar al-Islam)" 즉 "이슬람의 집"으로 부르지만, 자신들의 땅을 강압적으로 태국의 영토로 삼고 자신들을 그동안 정치적, 문화적으로 압박하고 지배해 온 태국의 여타 지역을 "다르 알 하르브(dar al-harb)" 즉 "전쟁의 집"으로 불러온 것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Kraus 1983, 110-111).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태국 남부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당시 말레이반도와 태국 남부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공산주의자들의 게릴라 전쟁과 말레이인들의 민족주의 의식의 증대로 불안과 동요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

다. 특히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은 민족들의 자결권을 선포한 1941년의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에 고무되어 있었다. 분리주의 운동가들은 1947년에 방콕 정부에게 빠따니 주, 사뚠 주, 얄라 주, 나라티왓 주에 대한 자치권을 요구했다. 자치권이란 이 네 개 주에서의 행정이 주민들이 뽑은 지도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요구사항은 그밖에도 공용어로 타이어 외에 말레이어도 인정해 줄 것과 초등학교에서 말레이어를 수업언어로 채택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요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Kraus 1983, 114, 123).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은 그 후 구체적인 조직체들이 결성되는 것으로 발전했다. 대표적인 것들로 빠따니공화국 민족해방전선(BNPP: Barisan Nasional Pembebasan Pattani), 민족혁명전선(BRN: Barisan Revolusion Nasional), 빠따니 연합해방기구(PULO: Pattani United Liberation Organisation) 등이 있다. 특히 학생 운동을 통해 정치화된 젊은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1968년에 창설된 PULO는 태국 남부에 독립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Kraus 1983, 122-124; Che Man 1990, 99). 1980년대 초 빠따니를 중심으로 한 남부에서 수천 명의 무장 반란군이 타이 정부에 대항하여 싸웠다. PULO의 이름은 그 후 태국 남부에서 암살 및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의 발표 혹은 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렸다. PULO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분리주의 단체들을 파생시키기도 했다.

PULO의 명칭과 활동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빠따니는 태국 남부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의 상징적 지역이자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반(反)타이 운동의 구심점이다. 태국의 시아파 무슬림들의 지도자로 알려진 소라윳 사꾼나산띠삿(Sorayuth Sakunasantisart)이 이슬람 빠따니 독립국을 부르짖은 것도 빠따니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소라

윳은 1994년 10월에 왕권모독죄와 국가반란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3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1995년 6월에는 빠따니 민족군대(TNP: Tentara Nasional Pattani)라는 새로운 분리주의 조직이 두각을 드러냈다. 많은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은 태국 국적과 말레이시아 국적을 동시에 갖고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한다. PULO와 위에 언급한 여러 분리주의 단체들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과 중동에까지 연결망을 갖고 있다. 특히 껄란딴을 비롯한 북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에게 종종 도피처로 작용해 왔다(조흥국 1996, 517-518).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 단체들은 초기에는 주로 학교나 군부대 및 경찰서와 불교사원 등과 같이 타이인들의 정치와 문화를 대표하는 기관과 건물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다가 점차 사람들도 테러의 대상으로 삼았다. 테러는 1990년대 초부터 방화, 수류탄 투척, 폭파, 총기난사 등 과격한 형태로 나타났다(The Nation 93/08/14, 93/08/23). 1990년대 후반에는 테러가 잠잠해져 반타이 및 분리주의 운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남부에서 또 다시 테러가 발생했다. 2002년 한 해 동안만도 약 20명의 경찰관과 2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저항은 2004년 이후 더욱 격렬해졌다. 2004년 4월에 빠따니에서는 타이 정부군과 저항세력간 일어난 유혈충돌로 저항세력 중 108명이 죽었다. 이들 중 1명의 몸에서는 무슬림들이 무장궐기 하여 남부를 해방하라고 촉구하는 글이 담긴 소책자가 발견되었다(The Straits Times 04/06/09). 그 해 10월에는 타이 군인들에 의해 연행되어 군용 트럭에 짐짝처럼 실려 가던 1,300여명의 말레이계 무슬림 시위대 중 78명이 질식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2005년 7월에 얄라에서는 저항 세력이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을 터뜨렸고 정부군과 시가전을 벌이기도 했다. 8월 말에는 남부 지방의 여러 곳에서

방화, 총격, 폭탄 등으로 테러를 일으켰다(BostonHerald.com 05/09/18). 당시 PULO의 한 대변인은 "우리들의 투쟁은 우리 민족에게 속한 것을 정당하게 도로 가져오려는 것이다. 빠따니는 말레이시아가 그러한 것처럼 말레이인들에게 속한다"라고 말했다. 2004년 이후 태국 남부 지방들에서 저항세력의 테러와 타이 군경의 잔인한 진압으로 사망한 자들의 수는 1,000명을 넘었다(Swissinfo 05/08/28; The Standard 05/10/01).

2. 동북부의 이산인 사회

태국 전체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북부 지역은 이산 지역이라고도 부른다. 이산 지역은 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또한 가장 빈곤한 지역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갖고 있는 이산 지역의 주민들은 태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오래 전부터 방콕과 중부 태국의 시암인(Siamese)[3]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또한 이산 지역의 문화가 시암인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과 인식이 이산 정체성으로 발전해 왔다.

타이 역사에서 이산 정체성의 형성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추진된 교육체계의 중앙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발로 1933년에 동북부의 마하사라캄에서 '노이(Noi)'란 이름의 한 향토 창극가수는 반정부 운동을 일으켰다. 향토 창극가수는 타이어로 '몰람(molam)'이라고 부른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고 아이들을 학교

3) 중부 타이인들을 '시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자들간의 오래된 관행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여타 지방의 타이인들과 구별하여 칭하기 위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는 이 관행에 따라 본고에서 '시암인'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로 보내지 말도록 촉구했다. 그는 또한 과거 라오스 왕국을 부활시켜 자신이 왕이 되고 이산 지역에도 또 다른 왕국을 세워 라오 세계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꿈을 세우기도 했다. 그의 시도는 그가 체포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지만, 방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산 지역 주민들의 적대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Keyes 1967, 69).

이산 지역 주민들 중에는 '몰람 노이(Molam Noi)' 사건을 기억하고 있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은 이 사건을 이산 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시하고 있다. 마하사라캄 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 대학의 학장인 짜루완(Caruwan Thammawat) 교수에 따르면, 이산 지역의 불교승려들 가운데는 과거 동북부 지방의 불교사원들에서 어린이들이 타이어 외에도 라오어를 읽고 쓰는 것을 배웠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산 지역 자녀들을 현대식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불교사원에 보내어 이산 지역의 전통적 방식대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4]

이산 지역에 대한 방콕 정부의 차별정책이 구체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타이족 중심의 국가주의 정책을 추진한 피분(Phibun) 정부 시기(1938-44)부터이다. 이산 출신 정치인들은 1930년대 말부터 방콕 정부에 대해 이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과 보다 공평한 경제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는 등 이산 지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증대하기 위해 애를 썼다(Luther 1970, 5). 자유민주주의 혹은 진보적 정치를 지지하던 그들은 또한 당시 파시즘적인 피분의 군부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1948년 4월에 재차 집권한 피분 정권은 많은 이산 출신 정치인들을 구속했다. 1949년 3월에는 몇몇 의원들이 동북부를 분리, 독립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결국 살해되었다. 이 살해사건은 이산 지역의 정치적 정체성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 촉매제

4) 필자의 2002년 12월 23-24일 마하사라캄에서의 현지조사.

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이산인들은 시암인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도 차별시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 인식은 그 후 수십년간 그들이 방콕 정부 및 시암인들과 더욱 폭넓고 빈번한 접촉을 함으로써 강화되었고 점차 이산 정체성으로 발전되었다(Keyes 1967, 26-35).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까지 이산 출신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타이 정부는 그들을 종종 공산주의자로 몰아 탄압했다. 특히 사릿 군부정권(1959-63)은 1961년에 이산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구속을 단행한 후, 이들이 동북부 지역을 태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에 동북부 주민들을 끌어들이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라오스의 공산주의 조직인 빠텟 라오(Pathet Lao)로부터 훈련과 행동지침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이산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은 1963년에 사릿을 이은 타놈(Thanom) 시대(1963-73)에도 계속되었다(Keyes 1967, 49-54; Thomas 1986, 17-18).

이산 지역과 방콕 정부와의 관계는 1960년대 중엽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이 반란은 15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이산 지역 주민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인력과 식량과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그 활동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방콕 정부에 대해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빈곤한 상황이 방콕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기간 공산주의자들은 이산 주민들에게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동북부 지방의 빈곤상황에 대해 환기시켜 주었고, 또 방콕 정부의 자본주의적 및 지방 편파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Brown 1994, 191-195). 그들의 이러한 프로파간다 활동은 이산 정체성이 강화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다.

방콕 정부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 1970년대까지 군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동북부 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산 지역 농민들에게 당시 방콕 정부의 행정적 통제가 어떻게 비쳤는지는 한 때 태국 내 반란진압의 임무를 맡았던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이 1975년에 행한 다음의 진술에서 잘 나타난다(Morell and Chai-Anand 1981, 87).

> 마을 주민들의 가장 심각한 불평사항 중에는 공무원들이 마을 주민들과 접촉할 때 보여주는 행동거지도 포함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과 공무원들간의 이러한 갈등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공산주의자) 반란군들이 마을 주민들을 반란으로 이끌어 들여 자신들을 지지하게끔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이산 지역 농민들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농민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홍수와 가뭄과 방콕에서 온 부패한 공무원이다"라는 속담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Rosenberg 1986, 140).

1980년대 이후 타이 정부는 동북부 지역에 대해 산업을 육성하고 비정부기구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점차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Somchai 2002, 23). 그러나 방콕과 중부 태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산업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여놓았으며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이산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끔 만들었다. 타이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989년경 동북부 지역 노동 인구의 82.5%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농업 생산은 지역총생산(GRP)의 33.3%에 불과했다(Suranart 1993: 7). 노동 인구의 17.5%가 지역총생산의 66.7%를 생산한 셈이었다.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이산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타 지방으로 노동 이주를 하는 것은 필

연적이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 매년 평균 약 200만 명의 이산 지역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발달한 태국 내 다른 지방이나 심지어 싱가포르 혹은 중동 국가들로 갔다. 이산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방콕으로, 그들은 방콕 일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요 인력을 공급했다. 1990년대 중엽에도 이산 지역은 태국에서 타지방으로의 이주가 가장 많은 지방이었다. 그 이주자의 약 62%가 방콕으로 갔다(Sanitsuda 1991, 21; FEER 94/04/14, 22).

방콕으로 이주한 이산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이 방콕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수확기와 파종기 사이에 돈벌이를 위해 온 계절노동자들이었으며, 그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문 경우라도 대개 몇 년만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방콕에 온 이산인들은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로서 저임금에 육체적으로 고달픈 일을 했다. 그들은 또한 라오어에 가까운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시암인들로부터 종종 경멸을 당했으며 "촌놈"이라고 욕을 얻어먹기도 했다(Luther 1970, 6). 이러한 경험을 한 이산인들은 시암인들과 자신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때로는 심지어 그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자신들끼리는 상호 결속을 모색하게 된다. 태국의 화인 집단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윌리엄 스키너(Skinner 1957, 309)에 따르면, 이미 1950년대에 방콕에서 계급의식을 지니고 동시에 상호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하층민 집단이 생겨났는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이산 지역 출신이었다.

이산인들은 이처럼 방콕에서 한편으로는 계급의식과 종족 차별의 경험과 그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 공통된 문화 의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후자는 전자를 통해 종종 더욱 구체화되었고 강화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방콕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전자의 경험 및 감정과 후자의 의식을 함께

가지고 갔으며, 이것은 고향에서 이산인들인 '우리'를 시암인들인 '그들'과 구분하는 이산 정체성 의식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Keyes 1967, 39).

3. 북부의 고산족 사회

태국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고산족으로 카렌(Karen), 몽(Hmong), 라후(Lahu), 아카(Akha), 미엔(Mien), 틴(Htin), 리수(Lisu), 러와(Lua), 카무(Khamu) 등 9개 집단이 있다. 이 중 숫자가 비교적 많은 주요 집단은 카렌, 몽, 라후, 미엔, 아카, 틴, 리수 등 7개 종족이다. 고산족들의 총 숫자는 2003년 현재 약 92만 명으로 추산된다.

〈표 2〉 태국 북부 주요 고산족들의 2003년도 인구

종족	촌락 수	세대 수	인구 수	비율(%)
카렌	1,912	87,628	438,131	47.47
몽	253	19,287	153,955	16.68
라후	385	18,057	102,876	11.15
아카	271	11,178	68,653	7.44
미엔	178	6,758	45,571	4.94
틴	159	8,496	42,657	4.62
리수	155	6,553	38,299	4.15
러와	69	4,361	22,260	2.41
카무	38	2,256	10,573	1.14
합계	3,420	164,574	922,957	100.00

출처: Technical Service Club(2004. 5)

북부 지역에서의 갈등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부나 동북부와는 약간 다르다. 남부의 경우 남부 전체의 인구에서 말레이계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지만, 빠따니, 사뚠, 얄라, 나라티왓 등 이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국경 지대의 몇몇 주에서는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갈등은 인구학적 차원을 띤다. 동북부의 갈등은 라오계의 이산인들이 이 지역 주민의 다수를 점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인구학적 측면이 보다 강하다.

그에 비해 북부에서는 갈등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소위 고산족은 인구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고산족 집단 가운데 북부의 어떠한 주에서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종족은 없다. 다시 말하면, 고산족들은 태국의 지역 및 종족갈등 문제에 있어서 인구학적으로 타이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부에서 고산족들은 남부에서와 같은 지역 분리주의 운동을 일으키지도 않고 동북부에서와 같은 주민들의 다수를 포함하는 지역 정체성을 발전시키지도 않는다.

북부에서의 고산족 갈등의 본질은 저지대 타이인들이 그들을 차별시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갈등의 구조는 남부나 동북부에서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언어적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 의사소통조차 용이치 않는 고산족 그룹들은 차별시되는 것에 대해 상호 단결하여 함께 저항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고산족을 둘러싼 갈등은 대개는 종족별로 국부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며, 타이 사회의 차별은 태국 북부 지역이 아니라 고산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점에서 고산족 갈등은 지역 갈등보다는 종족 갈등의 성격이 강하다.

고산족들과 저지대 타이인들간 갈등은 그다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저지대 타이인들은 고산족 주민들을 이웃으로 혹은 임산물을 공급하는 장사 파트너로 간주했다. 그러나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의 정치학자인 차얀(Chayan Vaddanaputti)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 우호적 관계는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베트남전쟁으로 베트남 난민들이 태국에

유입됨으로써 사라져 버렸다. 점차 고산족들을 범죄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고산족들은 타이 국민이 아니다"라는 말이 타이 역사책과 타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고산족들은 태국의 교과서들에 종종 이주자 혹은 난민들로 묘사되어 있다. 게다가 미개하고 문맹이며 화전경작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고 아편을 재배하는 자들로 간주되는 고산족 주민들은 저지대 타이인들의 눈에는 시민권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존재로 비친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언론의 고산족들에 대한 비난은 타이 정부의 고산족 차별정책과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다(Gill 2001, 2).

고산족 주민들은 난민 혹은 이주민이라는 비난은 정당하지 못하다. 몇몇 고산족 그룹은 그 조상이 수 세기 전에 태국에 들어와 살았으며, 대부분의 고산족 가족들은 태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지가 적어도 수 세대가 된다. 문제는 그들의 상당수가 타이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태국의 고산족 주민 중 타이 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약 60%에 불과하다.[5] 그들은 최근 자신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산과 숲을 떠나 저지대로 내려와 전통적인 화전경작을 버리고 저지대 타이인들의 생계방식을 취하며, 자신들의 언어 대신 타이어를 사용하며 불교를 믿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저지대에 내려와 타이인들과 함께 살더라도 시민권이 없으면 토지 소유권과 선거권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

고산족들에 대한 저지대 타이인들의 차별은 다수민족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에 다름 아니다. 비록 법에는 그러한 차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일어나는 상황은 분명히 인종차별의 측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정식 시민임을 인정해주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취직을 할 수 없고 가게를 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다(Bangkok Post 2000/12/31). 고산족들에 대한 각종 사

5)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docs/thai12.doc

회지표들이 그 구체적인 상황을 대변해 준다. 1997년 정부 통계를 보면, 고산족 주민들의 근 60%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그들의 영양실조는 타이 국민 평균의 2배쯤 된다. 또한 그들의 45% 이상은 수입이 기본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도 충분하지 않다(Gill 2001, 3). 1999년 4월에 치앙마이에서 1,000여명의 고산족 주민들이 시청에 모여 타이 국적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사건은 고산족 갈등에 있어서 시민권 이슈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Bangkok Post 99/05/16).

배운 것도 적고 가난하다 보니, 많은 고산족 여자들이 매춘업에 뛰어든다. 1993년에 태국의 공공복지부(Department of Public Welfare)와 고산족연구소(Tribal Research Institute)가 고향의 마을을 떠나 외지로 나가서 사는 1,683명의 고산족 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조사의 결과, 그들 중 '서비스 걸' 즉 매춘부가 610명이었고,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자는 156명이었다. 그런데 웨이트리스가 대개는 매춘으로 이어지는 직업임을 감안하면, 매춘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비율이 무려 45%를 넘는다(Montreevat and Ponsakunpaisan 1997, 290-291). 유니세프의 1997년 보고서는 태국의 매춘부들 10% 이상이 고산족 출신이라고 말한다. 태국 전체의 인구 중 고산족 인구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고산족 여자 중 매춘부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고산족들은 전통적인 화전경작으로 식생활의 자급자족을 유지했다. 그러나 당국의 강압으로 화전경작 대신 커피와 차 등 환금작물을 재배하고 혹은 저지대의 현대적인 도시생활을 원해 자발적으로 숲을 떠나 저지대의 생활공간으로 내려왔지만,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생태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자본주의적인 시장의 힘에 부딪혀 갈수록 좌절을 겪고 있다(Gill 2001, 3).

2000년 8월에 북부의 난 주에서 저지대에 사는 타이 농민들이 몽족에 대해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 고산족이 민감한 분수령

지대를 포함한 산림을 파괴함으로써 하류 지역에 용수가 심각하게 부족한 사태를 일으켰다고 비난하면서, 몽족의 과수원을 60헥타르 이상 불태워버렸다. 2001년 4월에는 태국 북단의 도시인 치앙라이에서 발행되는 *Nakorn Chiang Rai*지에 몽족이 20년 내에 북부에서 독립국을 세우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그 주장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몽족의 일부 주민들은 신문 기사에 격분하여 치앙라이 주의 주지사에게 기사 작성과 신문 게재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요구는 묵살되었다(Gill 2001, 1-3).

타이 사회에서 고산족들이 갖는 또 다른 갈등의 측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상실하고 점차 저지대 타이인 사회로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 간 많은 고산족 마을들이 타이 정부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송두리째 고향 땅에서 뽑혀 다른 곳으로 이식되었다. 재정착 고산족 촌락들로는 시암인들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왔다. 또한 고산족 주민들 중에는 저지대로 내려가 타이 사회의 도시 공간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TV, 영화, 인터넷 등의 현대 도시문화를 접해본 고산족 청년들은 종종 자신의 부족 전통을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치앙마이 주의 한 카렌족 마을인 매댓노이(Mae Daet Noi)는 치앙마이 시내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다섯 시간이나 걸리는 깊은 산 속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마을의 청년 남녀들은 거의 모두 치앙마이에 가서 그 곳에서 돈벌이를 하며 살고 있었다. 이들은 월 평균 4-5,000바트, 우리 돈으로는 약 10만원 번다고 했다. 이것은 저지대 타이인 청년들의 수입보다 적은 편이다.[6]

전통 말살의 위기에 직면한 고산족 주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막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고산족 그룹들로부터 청년들이 모여 뜻을 모아 '미러 아트 그룹(Mirror Art Group)'

6) 필자의 2006년 1월 6-8일 치앙마이주 매댓노이 마을의 현지조사.

이란 비정부기구를 결성하고 '고산족 가상 박물관(Virtual Hilltribe Museum)'이란 타이틀을 지닌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웹사이트의 목적은 고산족들의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고산족 주민들로 하여금 각 종족의 전통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끔 하며, 나아가서는 저지대 타이인들의 고산족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멸시를 불식시키는 것이다(BBC News 04/12/15).

Ⅲ. 지역 및 종족갈등의 원인 분석

1. 지역적 특수성

남부와 동북부와 북부는 각기 고유한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특징과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것은 민족 및 언어적으로는 따이-까다이(Tai-Kadai) 어족에 속하고 종교문화적으로는 상좌불교를 믿는 태국 중부 지역의 시암인들의 것과는 다르다. 이 절에서는 남부와 동북부와 북부에서의 지역 및 종족갈등의 근원주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 언어, 종교, 역사적 배경 등의 측면에 대해 개관한다.

1) 남부 저항의 중심으로서의 빠따니

남부의 말레이계 무슬림들은 민족 및 언어적으로는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인과 부미뿌뜨라(bumiputera),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등과 더불어 소위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어족에 속하며,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다.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태국의 영토에 편입되기까지 수백년간 태국에 대해 저항과 투쟁의 관계에 있어왔다. 태국과의 투쟁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내려오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과 중부 태국의 시암인들간 갈등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지난 수십년 전부터 남부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리주의 운동과 테러 사건은 지역으로 볼 때는 대부분 빠따니에서 일어났다. 조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에는 PULO 즉 빠따니 연합해방기구가 그 중심에 있어 왔다. 한 마디로 남부의 지역갈등에서 빠따니는 그 핵을 이루고 있다. 빠따니가 말레이 무슬림들과 타이인들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이 지역에서의 갈등의 한 중요한 뿌리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타이인들의 말레이반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4세기 말부터이다. 포르투갈인 뻐레스(Tomé Pires)의 보고에 의하면 이 때 태국의 아유타야(Ayutthaya) 왕국(1351-1767)의 이해관계는 빠따니 지역과 싱가포르까지 뻗어 있었다(Teeuw and Wyatt 1970, 5). 빠따니를 포함한 오늘날 말레이반도 북부의 여러 지역은 적어도 16세기 초까지는 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Matos 1982, 34-35). 태국이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당시 인도양-남중국해 무역에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빠따니는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상인들과 무슬림 상인들이 만나는 곳으로 인도네시아 및 다른 말레이 지역을 아유타야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중계무역항이었다(Teeuw and Wyatt 1970, 7).

빠따니와 아유타야와의 관계는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유타야 연대기들에 의하면, 1560년대에 미얀마 군대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유타야 왕이 그 속국인 빠따니에게 지원군대를 요청했는데, 아유타야에 온 빠따니 군대가 당시 이 도시의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왕궁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San Prasoet 1961, 18-19). 네덜란드인 반 블릿이 17세기에 쓴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책에 따르면, 빠따니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유타야의 왕과 그 왕위계승 후보자를 모두 죽임으로써 아유타야를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아유타야 군대의 반격으로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었다(van Vliet 1975, 74).

슈끄리(Syukri 1985, 19-21)는 당시 태국과 빠따니 사이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의 '빠따니 왕국사'에 의하면, 무자파르 샤(Muzafar Syah)는 아유타야의 왕과 더욱 친근한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아유타야에 갔으나, 속국의 신분을 경멸하는 그로부터 냉대를 받아 원한을 품고 빠따니로 돌아왔다. 그후 1563년에 미얀마가 태국을 친다는 소식을 들은 무자파르 샤는 이전의 냉대를 앙갚음하기 위해 아유타야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200척의 전선과 함께 아유타야에 도착한 빠따니 군사들은 성을 공격하여 많은 시암인들을 죽였다. 피의 복수를 흡족히 한 빠따니인들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던 중, 짜오프라야 강의 하구에서 그들의 술탄이 갑자기 죽어, 그를 그곳에 묻었다.

슈끄리의 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타이 정부가 문화적, 언어적, 교육적, 법적 동화정책을 태국 국경 내 말레이인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분출된 말레이 민족주의적, 반(反) 타이적인 강력한 열정의 영향력 하에서 쓰여진 것이다(Wyatt 1985, xi). 따라서 이 책은 사료로서 사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말레이인들이 오늘날에도 16세기의 빠따니-태국 충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빠따니는 그 후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사이 아유타야가 다시 군사적으로 강력한 동안 태국의 조공국으로 머물러 있었다(Teeuw

and Wyatt 1970, 13-14). 그러나 1620년대 말부터 빠따니는 태국에 대해 다시 저항하기 시작했다. 빠따니는 쁘라삿통(Prasat Thong 재위 1629-56)이 1629년 9월 유혈적인 쿠데타를 통해 아유타야의 왕위에 오르자, 타이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반 블릿(van Vliet 1910, 37)에 의하면, 빠따니의 왕과 그 대신들은 정식 왕위계승자들을 살해한 쁘라삿통을 합법적인 태국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빠따니 정부는 금화(金花)와 은화(銀花)로 된 전통적인 공물(供物)인 '붕가 마스 단 빼락(bunga mas dan perak)'을 아유타야에 보내는 것을 거부했으며, 1630년에는 당시 남부 태국의 행정 요지였던 나콘시탐마랏을 공격하기까지 했다.

태국과 말레이 이슬람 왕국들 간의 관계는 1656년 나라이(Narai 재위 1656-88)가 아유타야의 왕위에 오름으로써 호전되었다. 그러나 1670년대에 이르러 아유타야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말레이반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소요의 진원지는 빠따니였다. 당시의 사태와 관련하여 1680년대 중엽에 4년간 태국에서 활동했던 '파리외방선교회'(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소속의 제르베즈(Gervaise 1688, 61-62) 신부는 말레이반도 동안에 위치한 태국 남부 지역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시암인들에게 속한 이 연안의 다른 유일한 주요도시는 송클라다. 이 도시는 이 나라에서 그 크기나 아름다움보다는 수년 전에 이 나라의 왕에게 대항할 때 보여준 대담무쌍함으로 더욱 잘 알 려져 있다. 그 반란의 정신은 이웃인 빠따니 주민들에 의해 고취된 것인데, 빠따니 주민들은 천성적으로 난폭하고 방자하며 (타이) 왕국의 공인된 적이다.

빠따니의 반란은 1680년경 진압되었고, 그 후 점차 태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흡수되었다. 빠따니는 태국 최남단의 여러 지방들 가

운데 태국과의 가장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빠따니는 주위의 여러 술탄국 중 아유타야와 방콕에 대해 가장 노골적이고 과감하게 저항을 했다. 그때마다 태국의 잔인한 진압이 뒤따랐고, 빠따니의 숱한 말레이계 무슬림들이 목숨을 잃었다. 독립을 지향하는 빠따니의 말레이계 무슬림들과 타이인들간의 유혈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빠따니의 말레이계 무슬림 인구 중 상당 부분은 타이인들에 대해 깊은 유감과 나아가서는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다.

2) 라오 세계로서의 동북부

동북부 지역의 인구는 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태국과 라오스와 캄보디아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지역의 주민은 오랜 기간 민족들의 이동과 혼혈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종족 구성을 갖게 되었다. 이산 지역 주민들은 크게 나누어 라오 위앙(Lao Wiang), 라오 까오(Lao Kao), 라오 푸안(Lao Phuan), 그리고 시암인 계통의 타이 코랏(Thai Khorat) 등 네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도 크메르인, 베트남인 등을 포함한 소규모의 소수 종족들이 있다(Donner 1978, 589-594). 동북부 지역의 여러 종족 그룹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라오족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태국 전체의 인구 중 중부 타이인은 36%, 라오계 타이인(Thai-Lao)은 32%를 차지한다.[7]

이산 지역의 라오족 주민들은 민족 및 언어적으로는 시암인들과 마찬가지로 따이-까다이 어족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이산어는 라오어에 매우 가깝다. 라오어는 타이어와는 문자도 약간 다를 뿐만 아니라 어휘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겔너(Ernest Gellner)는 한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

7) http://www.nationbynation.com/Thailand/Population.html.

서 지리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 분명히 구분되는 자기 집단만의 언어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Hutchinson and Smith 1994, 66). 이 점에서 이산인들이 이산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산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부 지역 주민들이 '이산'이란 용어를 이처럼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적 및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모종의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Keyes 1967, 3).

동북부 전체가 태국 영토의 일부가 된 것은 약 200년 전이었다. 동북부의 대부분은 13세기 말 이전만 하더라도 앙코르(Angkor) 왕국의 크메르인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14세기 중엽에 라오스에서 파 응움(Fa Ngum)이라는 한 라오 왕자가 크메르 군대의 도움으로 루앙프라방 지역에 란상(Lan Sang) 왕국을 건립했다. 그는 란상 왕국을 건설한 후 동북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크메르인들의 통제하에 있던 오늘날 나콘라차시마 일대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코랏(Khorat) 고원의 모든 지역을 란상의 지배하에 넣었다. 란상 왕국은 역시 14세기 중엽에 건설된 아유타야 왕국과 그 후 수 세기간 코랏 고원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했다. 파 응움은 코랏 정복 후 곧 라오인들을 코랏 고원의 북부 일대에 이주시켰는데, 이것은 라오인들의 동북부 이주에 대한 첫 증거가 된다(Maha 1964, 27, 34).

아유타야 왕국은 17세기에 나콘라차시마에 동북부 지역 경영을 위한 요새를 건설한 이후 코랏 고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란상 왕국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에 비해 17세기 말 이후 란상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8세기 초에 왕국은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위앙짠(Viang Chan), 짬빠삭(Champassak)의 세 왕국으로 분열했다.

동북부 지역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사이에 라오스의 여러 왕국들과 태국 사이에 일어난 중대한 정치적 변화로 시암인들의

영토가 되었다. 1767년에 톤부리(Thonburi) 왕조를 건설한 딱신은 그 해에 미얀마 군대를 몰아내고 태국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라오스의 세 왕국들을 모두 태국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코랏 고원의 대부분을 태국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동북부 지역이 태국 영토의 일부로 전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은 1827년 위앙짠의 태국에 대한 반란이었다. 독립을 추구한 위앙짠 왕국은 짬빠삭과 연합하여 방콕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방콕 정부는 이에 대한 응징으로 위앙짠을 완전히 파괴했고 위앙짠과 짬빠삭의 모든 영토를 태국의 지방들로 편입시켰다(Vella 1957, 78-87). 그 결과 14세기 중엽 이후 부분적으로는 라오스 왕국들의 일부였고 부분적으로는 독립적이었던 동북부의 모든 지역은 이제 명실공히 태국의 한 일부가 되어버렸다.

3) 북부 고산족들의 이질적인 종족과 문화

고산족들이 살고 있는 태국 북부 지역은 과거에 란나(Lan Na)라는 왕국이었다. 종족적으로는 타이족에 속한 민족이 세운 란나 왕국은 수 세기간 미얀마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 하에 있었다. 태국이 란나를 속국으로 만든 것은 톤부리 왕조 시대였다. 그 이후 란나 지역에는 중부 타이인들의 문화가 퍼졌으며 1890년대에는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태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었다(Wyatt 1984, 118-209). 그러나 북부 지역의 이러한 역사는 란나 지역이 태국의 영토가 된 이후 그 곳의 고산족들이 시암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에 갈수록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 고산족들의 갈등에 대한 이해에서 의미를 갖는다.

북부의 고산족들은 민족 및 언어적으로는 다양한 그룹에 속한다. 그들 중 언어적으로 시암인들의 따이-까다이 어족에 속한 종족은 아무도 없다. 이들을 언어적으로 분류하면, 카렌족과 라후족과

아카족과 리수족은 티베트-버마(Tibeto-Burman) 어파에 속한다. 즉 이들은 미얀마의 버마족에 가까운 종족들이다. 몽족과 미엔족은 몽-미엔(Hmong-Mien) 어계에 속한다. 틴족과 러와족과 카무족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에 속한다.

고산족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그들은 각각의 언어, 복식, 종교,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둘째, 고산족들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종족마다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타 종족의 다른 정체성을 인정한다. 셋째, 카렌족이나 몽족이나 라후족과 같은 종족은 그 내부에 하위그룹이 있으며, 하위그룹끼리는 방언과 복식과 심지어 종교적 패턴도 다르다. 넷째, 위의 종족들 중 현재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가 만나는 소위 '황금의 삼각지대' 일명 '골든트라이앵글'에 사는 종족들은 모두 중국의 서남부나 남부 지역에서 이주해왔다. 그리고 카렌족을 제외하고는 이들 종족 그룹들은 중국에 여전히 많이 살고 있다.

태국의 고산족들은 이미 미얀마에서부터 일찍부터 불교화된 카렌족을 제외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 정령신앙과 주술신앙 혹은 샤머니즘의 세계의 속한다. 그에 따라 그들의 마을에서는 주술사나 샤먼이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기독교의 전파에 따라 고산족 주민들의 상당수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리하여 예컨대 라후족의 한 하위그룹인 라후 니(Lahu Nyi) 부족의 마을에서는 대개 마을 중심에 귀사(g'ui sha)라고 불리는 그들의 최고의 신을 섬기는 사당을 둔다. 그에 비해 라후 나(Lahu Na) 부족의 마을에서는 교회가 그 중심을 이룬다. 카렌족과 몽족과 아카족과 리수족도 상당부분 기독교로 개종해 있다(Lewis and Lewis 1998, 131-132).

2. 내부 식민주의

내부 식민주의 이론에 따르면, 중앙은 주변의 희생을 바탕으로 발전을 추구한다. 이것은 종족、지역적 의식에 기반을 둔 주변에서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중앙 중심의 내부 식민주의 구조는 주변에 대한 중앙의 경제적 착취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중앙이 주변의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의 이해관계는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국가는 중앙 중심의 자본주의적 생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에 대한 중앙의 지배를 종족 및 문화 차원에서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가 중앙을 중심으로 개발된 교육시스템을 주변에 확대시켜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중앙의 문화를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교육은 통합과 배제의 두 측면을 모두 갖는다. 즉 교육을 통해 한편으로는 주변을 중앙으로 문화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중앙의 문화의 우월성과 주변의 문화의 열등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중앙 중심의 문화제국주의가 추구된다.

브라운(Brown 1994, 158-162)은 이러한 성격과 구조를 갖는 내부 식민주의가 태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태국에는 방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지배적 종족집단이 있으며, 그 상반되는 쪽에 주변의 상대적인 저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종속적 종족집단이 확인될 수 있다. 둘째, 태국의 국가는 주변 지역의 그러한 종족 집단에 대해 경제적인 착취와 정치적인 억압과 문화적인 지배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강화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지역에는 태국의 남부와 동북부와 북부가 모두 해당된다.

태국에서 국가의 내부 식민주의적 침투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크게 두 국면으로 나뉜다. 첫째, 20세기 초부터 1950년대 말까지 방콕 정부는 지방을 중앙화된 행정체제로 편입하고 시암인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지방에 확대했으며 지방으로부터 세금징수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기간 지방들은 경제, 정치, 사회 등의 영역에서 중앙에 대해 종속적이자 열등한 지역으로 취급되었다. 둘째, 1950년대 말 이후 방콕을 포함한 중부 태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했고, 이 때문에 지방의 노동력과 천연자원과 식량에 대한 중부 태국의 요구가 그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Brown 1994, 173-175).

1) 행정 및 문화의 중앙화

방콕 정부는 1893년에 국가행정의 근대화의 일환으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했다. 이 조치는 그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국가행정의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진 것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태국이 1893년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로 메콩강 이동(以東)의 라오스 땅을 프랑스에게 양도한 후에도 메콩강 서쪽 연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태국 영토로 계속 팽창하려는 프랑스 식민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었다(조흥국 2002, 57-58). 이 해에 방콕 정부는 모든 지방들에 대한 행정을 내무부 산하로 단일화했다.

지방행정의 중앙화를 통해 지방의 짜오 므앙(cao muang)들 즉 토착적인 정치적 세력 기반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통치자들 중 상당 부분은 중앙에서 임명된 시암인 관리들로 대체되었다. 지방의 토착 주민들은 점차 자신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부 타이인들의 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중부 타이인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의 지방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교통 및 통신 수단의 근대화로 더욱 강화되었다.

방콕 정부의 행정적 통제와 교통 및 통신 체계가 지방으로 확대됨으로써 지방의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중부 타이인들로부터 압박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중부 타이 세계에 더욱 연결되었으며 방콕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경제 및 정치적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교육과 문화의 중앙화는 피분 정부의 국가주의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타이인들을 진정한 타이인으로 만든다"는 목적을 갖고 발표된 국가주의 정책은 구체적으로는 타이인들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과 타이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태국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분 정부는 태국 내의 여러 지역들뿐만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중국 윈난성, 베트남 북부 등에 사는 따이(Tai)족 계통의 모든 민족들을 타이족으로 간주한 소위 "범(凡)타이(pan-Thai)"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범타이 세계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수립해 놓고서도 그 세계의 이른 바 "타이 문화"는 중부 타이인들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Barmé 1993, 144-149; Stowe 1991, 102). 그리하여 1939년 8월 초 방콕 정부는 한 법령을 공포하여 태국 내 모든 타이 국민은 자신의 종족적 배경을 가리키는 모든 명칭을 벗어버리고 '차오 타이(chao thai)' 즉 타이인으로만 불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피분 정부는 태국 내 소수민족들이 중부 타이어를 배우도록 요구했다(Barmé 1993, 151-156).

교육의 중앙화는 쫄라롱꼰 왕이 1885년에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는 1921년에 실시되었다. 그 후 1934년까지 방콕 정부의 교육부에 의해 교과목과 교과 내용이 통일되었고, 이것은 전국의 학교에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의 학생들은 태국의 지리와 역사와 타이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물론, 타이 민족과 국왕과 불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요구되었다(Paitoon 1988, 155).

중앙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교육은 지방 주민들로 하여금 국왕을 구심점으로 한 타이 국가에 대한 일체감 즉 타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행정과 교통 및 통신의 확대와 마찬가지로 중앙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교육은 그들로 하여금 중부 타이인들의 문화와 사회에 더욱 밀착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시암인들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게도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 중심의 교육은 지방 주민들로 하여금 중부 타이 세계에 대해 한편으로는 더욱 가깝게 다가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리감을 갖게끔 만든 이율배반적인 이중적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Keyes 1967, 19-20).

교육과 문화의 중앙화는 무엇보다도 남부의 말레이계 무슬림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태국 내 소수민족들의 타이화를 겨냥한 피분의 국가주의 정책에 따라 말레이계 무슬림들은 타이식 의복을 입고 타이어를 말해야 했다. 또 그들은 무슬림들의 안식일인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쉬는 "근대적" 관습과 이슬람법 대신 불교적 가치관을 근거로 한 타이 법을 따라야 했다. 심지어 빠따니 주지사는 1944년 1월에 말레이계 지도자들과 울라마들이 모인 한 공식석상의 연설에서 불교는 타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믿는 국교이기 때문에 말레이계 타이인들도 불상에 경배하고 불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Forbes 1982, 1059; Farouk 1988, 253-258).

2) 타이 민족주의의 강화

불교、국왕、민족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 타이 민족 개념은 19세기 말 태국이 서구 열강의 위협 가운데 국가 주권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태국의 국왕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관료 등 엘리트는 타이 사회에 애국주의적 기풍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를 위해 타이인들을 단결시키는 이념적 틀로서 수백년 전부터 타이 문화의 보편적 바탕을 형성해 온 불교와 역시 오래 전부터 타이 사회의 정치적 구심적으로 작용해 온 왕권을 중시했다(Murashima 1988, 87-93).

타이 민족주의 형성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특히 라마6세라고도 알려져 있는 와치라웃(Vajiravudh 재위 1910-25) 왕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는 타이 국민이 국왕과 불교와 국가에 대해 충성심을 가져야 하면, 이 세 요소의 바탕 위에서 태국이라는 국가가 존립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세 요소에 대한 중시는 그가 제정한 적、백、청 삼색으로 된 태국의 국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적、백、청은 각각 민족, 불교, 국왕을 의미한다.

이처럼 관 주도로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타이 민족 개념은 태국의 다수민족인 타이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왕권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아유타야 왕국이건 그 이후 방콕 왕조의 왕국이건 간에 시암인들의 이해관계와 결탁된 것이었으며, 불교도 상좌불교를 믿는 시암인들의 보편적 이념이었다.

1950년대 말 사릿 정권이 추진한 '락 타이(lak thai)' 정책도 시암인을 중심으로 한 타이 민족주의를 그 근저에 깔고 있었다. '락 타이' 개념은 민족과 불교와 국왕의 세 요소가 태국이라는 국가를 떠받친다는 것으로, 불교를 믿고 국왕을 타이 사회의 구심점으로 갖는 태국 국민을 형성하려던 하나의 국가 이념이었다(Wyatt 1984, 281).

1970년대 말 타이 정부는 '타이'의 의미를 규정하고 '타이적인 것(Thai-ness)'을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국가정체성부(National Identity Board)를 신설했다. 국가정체성부는 타이 정체성의 핵심적 요소를 "국가적 통합을 이룩하고 국가가 독립과 주권을 지켜나가도록 해주는 국가와 종교와 국왕"의 세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19세기 말 이후 태국의 엘리트 계층이 지녀온 국가관의 반복이었다. 1980년대 초 국가정체성부가 발표한 설명에 따르면, 수코타이 왕조의 창건 이래 태국은 국가와 종교와 국왕이라는 세 요소를 결합하는 피라미드적인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피라미드적인 정부 구조가 수 세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왕권과 불교가 국가를 단단하게 결합시켜 왔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바탕에 농촌과 농민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Pasuk and Baker 1997, 315-319). 국가정체성부가 말하는 '타이적인 것'은 시암인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었다.

이상 살펴본 타이 민족주의는 태국 내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해 배제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 상호모순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한편으로는 수백년간 상좌불교를 믿고 국왕의 존재를 사회의 정점으로 받아들여 오면서 중부 태국 지역을 중심으로 태국이라는 국가를 이루어 온 시암인들이 그러한 문화적 및 정치·사회적 구조를 갖지 않은 소수민족들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경멸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상좌불교가 보편적 문화를 형성하고 국왕이 정점이자 구심점을 이루고 자신들이 다수민족인 타이 사회에 소수민족들을 통합하려는 수용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소수민족들 스스로도 경우에 따라 종종 시암인들의 사회에 통합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타이 민족주의가 소수민족들에 대해 갖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중 지역 및 종족갈등과 관계되는 배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시암인들은 남부의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을 종종 '캑(khaek)'이라고 부른다. 중국어 '객(客)'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이 용어는 태국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말레이계 타이 무슬림들로서는 태국 남부 지역의 원주민인 자신들이 '손님' 혹은 '이방인'을 뜻하는 이 용어로 불리는 것이 불쾌할 뿐이다.

타이인들의 이러한 자세는 타이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인종 차별주의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인종 차별주의적 자세는 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타이인들은 국민국가를 건설해오면서 민족주의를 강조해 왔으며, 다른 민족들을 자신보다 열등한 것으로 경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태국 TV의 코미디 프로그램과 드라마는 종종 동북부의 이산인들을 포함한 라오인들을 놀림감으로 삼고, 타이 시청자들은 그러한 방송을 재미있게 간주한다. 타이 사회에서 "라오"나 "까리앙"(카렌족에 대한 타이어 명칭) 등의 민족 개념은 시골적인 외모를 가진 밋밋한 사람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된다. 태국의 역사학자인 찬윗(Charnvit Kasetsiri) 교수는 "타이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서양 국가들과 일본 등지에서 깔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보다 물질적으로 덜 발달되었다고 간주되는 민족들을 경멸한다"고 말한다(South China Morning Post 99/09/15; The Nation 00/04/09).

3) 중부 중심의 산업화

태국에서의 산업화는 1950년대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정책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그 정책은 1960년대에는 수입대체산업을, 1970년대 이후에는 수출지향산업을 지향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경만 해도 태국은 여전히 농업이 공업보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에서 더욱 높은, 그리고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

사하는 명실상부한 농업국이었다. 그것은 1986년에야 비로소 바뀌어, 이 해에 공업이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에서 농업을 추월했다. 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여,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988년 13.2%에 달했고 그 후 3년간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로 수출산업의 호황에 따른 이러한 경제성장은 공업 구조가 다양해지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타이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국민일인당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Falkus 1995, 13-15).

태국에서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방콕에 집중되어 일어났다. 그것은 특히 1958년부터 국가적 부르주아 계층을 육성하는 신용 및 투자유치 정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이 때 정부의 지원은 대기업과 금융업에 집중되었다(Brown 1994, 166). 예컨대 1985년경 태국 전체 공업 생산의 약 80%가 방콕 광역시에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방콕과 중부 지방이 산업의 중심으로서 더욱 발달되었고, 아래의 〈표 3〉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중앙과 주변간 격차가 점차 증대되었다.[8]

〈표 3〉 1960-1989년 국민총생산의 지역별 분포 추이

지역 구분	국민총생산의 지역별 비율(%)				1989년도 1인당 국민소득 (단위: 바트)
	1960	1970	1980	1989	
방콕 광역시	22.6	29.0	31.1	48.1	96,239
중부	28.8	27.7	29.0	18.5	30,587
북부	15.4	15.1	13.9	11.4[9]	18,833
동북부	17.4	15.7	14.4	12.9	11,981
남부	15.7	12.4	11.5	9.1	21,955

출처: Pasuk and Baker(1997, 162).

8) 1986년 태국의 지역별 1인당 지역총생산(GRP)을 보면, 방콕 광역시가 59,885바트, 동부가 30,483바트, 중부 및 서부가 19,407바트, 북부가 13,112바트, 동북부가 8,321바트, 남부가 15,542바트였다(Falkus 1995, 16). 동부와 중부와 서부는 대개 합쳐 중부로 간주된다. 이 수치에서도 중앙과 주변간 경제적 격차가 뚜렷이 나타난다.

방콕 중심의 산업 발달과 방콕에 집중된 태국의 경제성장은 농촌 인구의 방콕으로의 유입을 수반하여, 아래의 〈표 4〉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방콕 지역의 인구성장률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다. 방콕 및 중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은 방콕 정부가 중앙의 경제성장을 위해 지방의 천연 및 인적 자원을 착취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내부 식민주의의 양상이다.

〈표 4〉 1960-1989년 방콕과 기타 지역간 국민총생산 성장과 인구성장 추이

시기 구분	국민총생산 성장률(%)			인구 성장률(%)		
	방콕 광역시	기타 지역	방콕:기타지역 비율	방콕 광역시	기타 지역	방콕:기타지역 비율
1960-70	12.5	8.6	1.5:1	3.7	2.6	1.4:1
1970-80	18.4	17.2	1.1:1	4.4	2.5	1.8:1
1980-89	16.7	7.7	2.2:1	7.3	1.7	4.3:1
1960-89 평균	15.8	11.3	1.4:1	5.0	2.3	2.2:1

출처: Pasuk and Baker(1997, 162).

태국의 산업화는 섬유업과 식품가공업, 자동차, 오토바이 및 전자 부품조립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제조업 생산품의 수출은 갈수록 증가하여, 예컨대 1960년만 하더라도 수출총액에서 국내 제조업 생산품이 차지하던 비율이 1.2%였던 것이 1970년에는 15.1%로, 1980년에는 28.4%로, 1988년에는 63.2%로, 1992년에는 77.8%로 급격하게 증가했다(Falkus 1995, 17-20). 벨(Bell 1997, 63)에 따르면, 태국에서의 이러한 수출지향적인 산업의 발달은 제조업 생산품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비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필요는 무엇보다도

9) 이 표에서는 국민총생산 비율에서 북부가 동북부보다 낮고 남부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 상황은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해야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1986년에 방콕 광역시는 550만, 중부는 1,180만, 북부는 1,050만, 동북부는 1,860만, 남부는 660만이었다(Falkus 1995, 16).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지속적이고 많은 인구의 이주를 통해 채워졌으며, 그러한 인구의 상당 부분은 여성이었다.

태국의 지역 및 종족갈등에 있어서 이러한 경제적 원인은 예컨대 남부 주민들의 방콕 정부에 대한 생각에서 읽을 수 있다. 남부 지방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당국은 그것이 분리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말한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나름대로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부 지방의 주민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더욱 많은 치안 병력을 남부에 파견하는 것이 소요를 잠재우고 평화를 갖다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왕년에 PULO의 사무총장이었던 유수프 롱삐(Yusouf Longpi)는 남부 주민들의 대부분이 타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이 지역에 깊이 뿌리박힌 불법적인 마약과 가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10] 태국의 영문 일간지 *Bangkok Pos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지인들이 타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 문제의 해결과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 현지인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보다 공정한 경제적 재분배이다(동남아선교뉴스레터 2003/27, 23-24).

Ⅳ. 결론

타이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주변의 지방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것은 특히 단일화된 교육제도의 실시를 통해 많은 성과를 보았다. 이제는 북부의 고산족 오지마을의 청소년들도 타이어

10) 태국 남부 무슬림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Sirirat(2005) 참고.

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의사소통의 수단에 있어서는 저지대 타이인들과 고산족들간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타이 문화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가르치는 교과내용을 통해 주변부 지방 주민들 중에는 부지불식간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타이 사회에 동화되어 스스로를 타이 국민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 어떤 자들은 스스로 타이 사회로의 동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태국에서의 국가통합은 부분적인 모습일 뿐이다. 그것은 진행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태국이 통합되어 있고 타이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중부 타이인들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유효한 것이다. 남부와 동북부와 북부에서 여전히 확인되는 지역 및 종족갈등은 비록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남부에서의 유혈사태는 국가통합을 위해 타이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들의 유효성과 심지어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끔 한다.

타이 정부가 근대화 이후 1세기 이상 추구해온 태국이라는 국가 만들기 작업은 사실 방콕 및 중부 중심이었고, 그 추진력의 밑바탕에는 타이 민족주의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타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타이 민족주의이다. 이 측면은 태국이라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는 태국의 국가통합이 중부 태국에 집중되어 있고 시암인들 즉 중부 타이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통합의 측면만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 한 사회에 대한 학문적 분석은 미세한 변화와 차이도 중시하고 그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요구하는 지역연구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연구의 자세를 통해서이다.

태국의 남부, 동북부, 북부 등 세 지역에서의 지역 및 종족갈등의 상황을 소개하고 그 원인은 분석한 이 연구는 타이 사회에 공존하는 통합과 지역·종족갈등 중 갈등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나 각 지역에서의 갈등의 구조를 상세히 보여줄 수 있을 비교지표나 그 구조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가능케 할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 논문이 세 지역 전체를 모두 다룸으로써 태국에서의 지역 및 종족갈등 현상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교지표와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의가 세 지역 가운데 한 지역에나 원인의 한 측면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이 논문은 태국의 국가통합과 지역 및 종족갈등에 대한 하나의 시론적 연구이다. 이 논문이 이 이유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들을 위한 자극에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동남아선교뉴스레터. 각 호.

조흥국. 1996. "태국." 홍기창·하영선 편. 『아시아·태평양 1996』. 서울: 까치.

조흥국. 2002. "메콩강의 경제적 잠재력과 유역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조흥국 외. 『메콩강과 지역협력』.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Barmé, Scot. 1993. *Luang Wichit Wathakan and the Creation of a Thai Ident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BBC News. 각 호.

Bell, Peter. 1997. "Thailand's Economic Miracle Built on the Backs of Women." Virada Somswasdi and Sally Theobald, eds. *Women,*

Gender Relations and Development in Thai Society. Chiang Mai: Chiang Mai University.

BostonHerald.com.

Brown, David. 1994. *The State and Ethnic Politics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Che Man, W. K. 1990. *Muslim Separatism: The Moros of Southern Philippines and the Malays of Southern Thailand*.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Donner, Wolf. 1978. *The Five Faces of Thailand: An Economic Geography*. Hamburg: The Institute of Asian Affairs.

Falkus, Malcolm. 1995. "Thai Industrialization: An Overview." Medhi Krongkaew, ed. *Thailand's Industri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New York: St. Martin's Press.

FE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각 호.

Farouk, Omar. 1988.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Malay-Muslim Ethnic Nationalism in Southern Thailand." Taufik Abdullah and Sharon Siddique, eds. *Islam and Society in Southeast Asia*. Singapore: ISEAS.

Forbes, Andrew D. W. 1982. "Thailand's Muslim Minorities: Assimilation, Secession, or Coexistence?" *Asian Survey* 22(11).

Gervaise, Nicolas. 1688. *Histoire naturelle et politique du Royaume de Siam*. Paris: Claude Barbin.

Gill, Teena Amrit. 2001. "Thai hilltribes battling discrimination." *Asia Times Online*. September 1.

Hutchinson, John and Anthony D. Smith, eds. 1994.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yes, Charles F. 1967. *Isan: Regionalism in Northeastern Thailand*. Ithaca: Cornell University.

Kraus, Werner. 1983. "Der Islam in Thailand: Über die Entwicklung und Problematik des Islams in Südthailand, den islamischen Modernismus und die separatistische Bewegung im Süden." Werner Draghun, ed. *Der Einfluss des Islams auf Politik,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n Südostasien*.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Lewis, Paul and Elaine Lewis. 1998. *Peoples of the Golden Triangle*.

Bangkok: River Books.

Luther, Hans U. 1970. *Reformen gegen Rebellen - Zur Situation der Bauern in Thailand.*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Maha, Sila Viravong. 1964. *History of Laos.* New York: Paragon Book.

Matos, de Luís. 1982. "The First Portuguese Documents on Siam."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ed. *Thailand and Portugal: 400 Years of Friendship.* Lisbon: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Montreevat, Judy and Margaret Ponsakunpaisan. 1997. "Prostitution and AIDS: The Risks of Being a Young Tribal Woman." Don McCaskill and Ken Kampe, eds. *Development or Domestication? Indigenous Peoples of Southeast Asia.* Chiang Mai: Silkworm Books.

Morell, David and Chai-Anand Samudavanija. 1981.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Reform, Reaction, Revolution.* Cambridge, MA: Oelgeschlager Gunn & Main Publishers.

Murashima, Eiji. 1988. "The Origin of Modern Official State Ideology in Thailand."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1).

Paitoon, Mikusol. 1988. "Education and Sociocultural Assimilation in Northeastern Thailand." Mahasarakham: Mahasarakham University.

Pasuk, Phongpaichit and Chris Baker. 1997. *Thailand: Economy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osenberg, Klaus. 1986. *Sozialkritische Literatur in Thailand: Protest und Anklage in Romanen und Kurzgeschichten eines Landes der Dritten Welt.* Hamburg: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e.V.

San Prasoet. 1961.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luang san prasoet.* (루앙 산 쁘라섯本 아유타야 왕실연대기) Ongkankha khong khurusapha, ed.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lae phongsawadan nuea.* Vol. 1. Bangkok: Ongkankha khong khurusapha.

Sanitsuda Ekachai. 1991. *Behind the Smile: Voices of Thailand.* Bangkok: Thai Development Support Committee.]

Sirirat Taneerananon. 2005. "Poverty of the Thai Muslims in the South of Thailand: A Case of Pattani."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ai Studies, London University.

Skinner, G. William. 1957. *Chinese Society in Thailand: An Analytical Histo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Somchai, Phatharathananunt. 2002. "The Politics of the NGO Movement on Northeast Thailand." *Asian Review* 15.

South China Morning Post. 각 호.

Stowe, Judith A. 1991. *Siam Becomes Thailand: A Story of Intrigu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Suranart Khamanarong. 1993. "Village Industries: An Alternative Basis for Rural Development in North-East Thailand."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ai Studies, London University.

Surin, Pitsuwan. 1985. *Islam and Malay Nationalism: A Case Study of the Malay-Muslims of Southern Thailand.*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Swissinfo. 각 호.

Syukri, Ibrahim. 1985. *History of the Malay Kingdom of Patani.*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Technical Service Club. 2004. *The Hill Tribes of Thailand.* 5th Edition. Chiang Mai: Tribal Museum.

Teeuw, A. and D. K. Wyatt. 1970. *Hikayat Patani: The Story of Patani.* The Hague: M.Nijhoff.

The Nation. 각 호.

The Standard. 각 호.

The Straits Times. 각 호.

Thomas, M. Ladd. 1986. "Communist Insurgency in Thailand: Factors Contributing to Its Decline." *Asian Affairs* 13(1).

Van Vliet, Jeremias. 1910.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Journal of the Siam Society* 7(1).

Van Vliet, Jeremias. 1975. *The Short History of the Kings of Siam.* Bangkok: The Siam Society.

Vella, Walter F. 1957. *Siam Under Rama III 1824-1851.* New York: J. J. Augustin Incorporated Publisher.

Wyatt, David K. 1984. *Thailand: A Short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Wyatt, David K. 1985. "Foreword." Ibrahim Syukri. *History of the Malay*

Kingdom of Patani.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http://www.nationbynation.com/Thailand/Population.html
(검색일: 2006.08.10).
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docs/thai12.doc
(검색일: 2006.08.10).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gional and Ethnic Conflicts in Thailand

CHO Hung-Guk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Thai government ha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ried to achieve the national integration through various policies. These were, however, often carried out without consideration for the culture and interests of the peoples in the provinces of the South, Northeast and North. The result was that Thai society has experienced regional and ethnic conflicts in these three outlying regions. The reasons of the conflicts can be analysed from not only a primordial but a circumstantial perspective. For the latter's viewpoint, the following factors of internal colonialism will be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the centralized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Thai nationalism since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centering on Bangkok and central region since the 1950s.

Key Words: national integration, internal colonialism, Malay Muslim, Isan identity, hill tribes